

## 美 國防省의 예산지출문제

1977년만해도 미국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그 빛이 2천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다.

또한 1986회계년도에 미국의 예산결손은 2천 2백10억불에 달하였고, 1987~1988년도에도 2천억불 이상의 예산결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86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1천7백10억불을 기록하였다. 1987년 12월 31일 까지의 미국 무역적자 역시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군사기술 즉 국방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방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低稅法案을 거부하고 뒤이어 1천2백억불 상당의 국방예산을 증액함으로써, 현재 미국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

1985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3천1백억불을 넘었었다. 그리고 1986년도에는 2천8백40억불을 밀돌았으며, 1988년도의 국방예산도 국방성이 제출한 3천1백억불에서 2천8백억불이하로 삭감되는 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카터 대통령의 정책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면 국방성은 아마도 7천5백억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금액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미국의 예산결손 및 무역결손의 총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다. 더우기 레이건 대통령하에서의 국방비 지출은 지금부터 5년내의 미국의 예상 채무액과 동일하다. 그래도 대부분의 레이건 대통령의 방위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국방성은 잘못된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美 국방성의 예산은 인건비, 운영/계획비, 유지비, 연구·개발비, 획득비 등으로 나뉘

어진다.

87년도의 예를 들면 7백10억불이 인건비에, 7백70억불이 운영·유지비에, 3백40억불이 연구·개발에, 그리고 8백30억불이 획득에 사용되었다.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의 60% 이상은 소비활동에 의해 다시 일반경제로 되돌아 왔다. 더우기 美 군사기지는 인근사회를 지탱시켜줄 만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무기만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방비는 음식과 피복을 구입하고, 건설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운영비는 종이에서 연료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구입함으로써 일반경제로 되돌아 간다. 연구·개발비는 다른 분야의 국방비보다 완만히 증가해 왔다. 연구·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낡은 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 없이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구식장비에 지출하는 것보다 현대장비에 지출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10개의 탄도를 가진 1대의 미사일은 그 값이 2개의 탄도를 지닌 과거의 미사일보다 비싸지만, 10개의 탄도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5대의 미사일을 만드는 것 보다는 저렴하다. 그런데도 획득비용에 대한 문제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

몇몇 議員들은 예산을 삭감시킬 때 손쉬운 방법을 취한다. 즉 가격이 비싼 아이템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문에 6백60억불 상당의 육군 LHX 프로그램, 2천8백억불 상당의 공군 B-1B 프로그램, 그리고 2백50억불 상당의 MX 프로그램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이 정말 필요한가, 또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작업 없이 이 계획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지는 체처두고라

도, 이 계획은 5만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요비용의 63% 이상이 소비활동을 통해 일반경제로 되돌아 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미국의 국방비가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속에서 보다 지혜롭게 국방비를 지출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따라서 議會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하며, 국방성으로 하여금苦心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드는, 즉 효과나 전투력의 손실 없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立法化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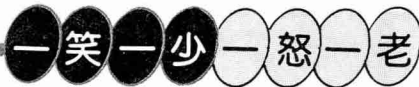
이를 위한 방법들이 여러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협력, 특히 NATO 회원국들과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확대의 문제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사업 및 2차자원의 개발, 경쟁력의 개선방안이 다루

어져야 한다.

국방성은 또한 중거리핵무기(INF)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한다. 유럽에서의 핵무기 감축은東西 양진영으로 하여금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기구간의 재래식 무기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이 균형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유럽의 전쟁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국방성이 재래식 무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최근 前 나토駐在 美大使 David Abshire 박사가 나토 수뇌들에게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간의 INF 협정을 따라야한다고 건의한 이유도 그것이다.

그 결과 나토수뇌들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제안을 하였다. 이것은 나토 사무총장 Carrington의 말처럼 「돈 안드는 일」인 것이다.



## 정말 정신병환자

정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왜 이 병원에 들어왔는지 그 까닭을 알고 있나요?」

환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그걸 모르면 제가 정말 정신병자이게요?」

의사는 놀라며 기쁜 얼굴로 물었다.

「그럼 대답을 해봐요. 왜 이 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황소라고 착각해

왔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아주 좋습니다.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니깐, 이제 당신은 거의 다 낳았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스스로를 황소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지요?」

젊은 정신병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제가 송아지때부터 그랬었지요」